

근대 사회이론의 접합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

손 명 철*

Modern Social Theories and New Regional Geography

Myoung-Cheol Son*

요약: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지리 연구의 새로운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그 윤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는 지리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지역지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그 속에 온갖 事象(things)을 담고 있는 容器(containers)가 아니다. 그것은 한낱 어떤 존재의 외부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본질적 차원이다. 신지역지리학은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조화 이론에서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 흐름, 공간적 분업론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세계체계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마지막으로 탈-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지역지리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신지역지리 연구이념을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로 이어주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공간, 구조화이론, 공간적분업론, 세계체계론, 신지역지리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new regional geography approaches that have been lively discuss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since 1980s. The discussion of the new regional geography is based on intellectual interchange between geographers and social theorists. The new regional geographers regard a space as a more active thing. A space is not a merely passive container. It is not a outer settings, but a essential dimation of the human being. The new regional geography has been discussed in four perspectives: structuration theory perspective, spatial division of labour theory perspective, world-systems theory perspective, and post-poststructuralism perspective. The new regional approaches well provide a new direction to regional studies. However, it is so abstracted in concepts for the empirical examin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so-level of concept.

Key Words: Space, Structuration Theory, Spatial Division of Labour, World-Systems Theory, New Regional Geography

지역의 다양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解讀하려 애쓰고 있는 중이다.(Nigel J. Thrift, 1990a)

1. 머리말

단순한 '상식의 합성물'에 머물던 지리학에서 벗어나 '과학'(science)로서의 지리학을 구축하려던 공간분석론적 패러다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름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서양 지리학계는 지리학, 특히 인문지리학을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인문지리학을 다시 정립

하려는 논의의 핵심에는 지역지리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지리는 '재구성된 지역지리,' '사회과학적 지역지리,' 혹은 '신지역론'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보다 이론화된 지역지리, 그리고 공간적 차이에 민감한 지역지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적 기반을 지닌다. 한국에서도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국학으로서의 지리학,'(박영한, 1987)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류우익, 1986) '새로운 지역지리학,'(최병두, 1994) '신지역지리'(박규택·이상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지리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은 '80년대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Cheju National University)(sonmy@cheju.ac.kr)

활발하게 논의된 지역지리 연구의 새로운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그 윤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통지역지리 연구의 침체 원인과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의 등장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들 양자의 차이를 몇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려 한다. 그리고 지역지리와 현대 사회이론이 만나면서 공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풍요로워졌는가를 검토한 후, 신지역지리 연구의 주요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이들 논의가 우리 국토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전통지역지리학의 침체와 신지역지리학 등장

1) 전통지역지리학의 쇠퇴

지리학에서 계량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전까지의 지리학은, 어떤 개념적 준거에 적합한 지식이나 구조화된 개념에 의해 정의되는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당시의 지리학은 일반 과학이라기 보다는 반복된 훈련이나 야외조사를 통해 학습되는 하위분과로 이해되었으며, 따라서 지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 읽는 법을 배우고, 경관 - 주로 起伏과 농업적 토지이용패턴 - 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며, 현지주민의 생활방식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Johnston & Claval, 1984).

계량혁명 이후 이와같은 전통지역지리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역지리학의 위기는 지역지리 자체에 대한 실망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생겨난 현실세계(reality)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근대적인 농촌지역이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과거와는 아주 색다른 경관을 나타내게 되고, 인구도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선적인 역사적 접근법은 이러한 지역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 지역지리학은 무력해지고, 세계는 과거에 의한 설명보다는 현재의 기능에 의한 설명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전통적인 지역지리 방법론은 생산수단이 발달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져서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근대화된 지역에서보다는, 주민의 생활

이 단순하고 사회적 활동이 경관상에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전근대적인 지역에 더욱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Wrigley, 1965).

전통지역지리의 쇠퇴를 단순히 현실 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문적 적실성의 결여만으로 설명하기는 충분치 않다. 학문 내적인 취약성도 전통지역지리학의 침체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역이 가지는 고유성(the unique)과 특이성(the singular)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반화를 소홀히함으로써 어떤 한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와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통찰력이 다른 새로운 지역을 연구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지리학 이외의 여타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진 방법론과 분석기법을 충분히 원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연구자 개인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절충주의(eclecticism)와 연구주제(themes)와 문제(problems)를 선정할 때 나타나는 무원칙한 선택, 그리고 경관연구에만 편중되어 있을뿐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제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점 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oekveld, 1990).

이처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현실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전통지역지리 연구가 지니는 여러 가지 학문 내적인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지역지리 연구는 지리학 내에서 급속하게 위축되어 갔다.

2)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전통적인 지역지리가 쇠퇴했다고 해서 지리학에서 지역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지역의 다양성 혹은 고유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도 아니다. "(전통)지역지리는 죽었다"고 사망선고가 내려진지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지역지리 부활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가지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다(Johnston, Hauer, Hoekveld, 1990). 하나는 보편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공간분석론자들의 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이루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어떤 맥락에서 팽창하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

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배태하고 양육한 환경(milieux)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경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균등발전(=지역차 areal differentiation =지리)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새로운 지역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상이하다. 이들은 우선 지역을 사회적 행위의 산물로 본다(Johnston, 1991). 지역이 서로 다른 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은 자기재생산적 실체(self-reproducing entities)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역은 곧 사람들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s)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사회화의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특정한 가치와 태도를 심어준다. 사람은 장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진다는 것이 이들이 지역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신지역지리는 몇가지 측면에서 전통지역지리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전통지역지리와 신지역지리는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前者가 經驗主義(empiricism)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비해, 後者は 實在論(re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신지역지리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인식론적 지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反定礎主義(anti-foundationalism)입장에서 통일적이고 단선적인 인식체계를 거부한다. 전통지역지리 연구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記述(thin description) 위주의 방법이었음에 반해, 신지역지리는 그것을 說明하고 解釋하려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의 意味와 象徵까지를 따져 묻는 深層記述(thick description)을 추구한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 혹은 연구대상이 되는 時點에서도 兩者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통지역지리에서의 시간은 대체로 過去 혹은 과거시점이었으나, 신지역지리는 과거에 비추어 이해되는 現在, 즉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과학(a science of the future)이다(Gilbert, 1988). 그러나 무엇보다 양자의 차이를 의미있게 드러내 주는 것은, 지역고유성(regional uniqueness)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 지역의 고유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전통지역지리에서는 폐

쇄체계 속에서 지역내 제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의해 지역의 고유성이 형성된다고 보았음에 반하여, 신지역지리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개방체계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역의 고유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양자가 지닌 연구이면의 함의도 상이한데, 전통지역지리가 세계를 알기 위한 도구를 탐색하는 것이라면 신지역지리는 실천적 행위 도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Warf(1988)의 논의는 신지역지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신지역지리는 설명의 普遍的 法則을 거부하며, 올바른 탐구목표로서 個別的 特性(the idiographic)에 대한 記述을 부활하려는 인식론적 특징을 지닌다. 장소의 국지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론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역사적으로 상세하고 풍요롭게 기록하려는 방법론적 지향을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신지역지리란 기존의 지리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空間(혹은 지역, 장소)의 意味와 役割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것이며, 공간이 가지는 의미의 풍요성을 제대로 드러내려는 지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의 변화는 인문지리학과 사회이론의 방법론적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지역지리와 사회이론의 만남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 혹은 공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에 들어와 지리학과 사회학 분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Giddens(1984)는 이제 “인문지리학과 사회학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혹은 방법론적 차이가 없다”고 결론 짓고, 사회이론가들에게 지리학으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좀더 많이 배워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Urry(1981) 역시 “지금까지 사회과학자들, 특히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현상의 空間的 變移(spatial variations)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사회계급을 공간적 차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리학계에서는 특히 Gregory(1978)가 인접 사회이론가들

과의 대화와 논쟁을 활발하게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Giddens의 구조와 행위에 관한 이론을 “構造化”(structuration)理論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인문지리학자들이 사회이론가들과 적극적으로 지적교류를 넓히면서, 이들 분야에서는 공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상당한 연구성과도 얻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의 성과가 지리학 내에서는 특히 지역지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지리 연구는 대부분 사회학 분야와의 교류에서 얻어진 지적 성과를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空間의 意味

지금까지 지리학자들, 특히 지역지리학자들이 아무리 자의적으로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의 개성을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할지라도, 지리학 연구의 핵심 대상은 역시 地域(혹은 장소, 공간)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場所와 空間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개념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객관적 기준없이 한 두 개의 관찰시점을 선정하여, 제한된 구역의 측정가능한 혹은 가시적인 속성들을 선별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Pred, 1985). 따라서 그것이 공간적 분포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들로 표현되건, 물리적 사실과 인공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유한 합성체(unique assemblages)로 표현되건, 혹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위로 표현되건, 장소와 공간은 그 위에서 인간활동이 펼쳐지는 단순한 무대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심지어 새로운 인간주의를 주창하는 지리학자들, 즉 장소를 주체에 대한 객체로 보고, 장소란 곧 개별 인간이 느끼는 가치와 의미의 중심이며 정서적 연계와 유의미성이 구축되는 지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장소란 본질적으로 스스로는 꿈쩍도 못하는 비활성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지리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학자들은 이들과는 아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Massey (1984)는 시대에 따라, 혹은 패러다임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여 왔는가를 보여준다:

...전통지역지리에 있어서 공간 혹은 공간적인 것이라는 의미속에는 ‘場所’(place)라는 개념과 ‘自然’世界(natural world)에 대한 관심, 그리고 豊饒性(richness)과 特異性(specificity)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계량 및 공간 분석학파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距離(distance)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나 계량화가 가능한- 개념으로 환원시켜 버렸다. 즉 이들에 의해 공간은 하나의 單一次元(a dimension)으로 환원되어 버렸다. '70대에 진행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들은, 공간적인 것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함으로써 그것의 내용에 대한 논쟁마저도 모두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본래 ‘空間的’이라는 용어의 의미속에는 사회세계의 전반적인 양상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것은 距離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측정치에서의 차이, 거리 개념이 가지는 內包(connotations)와 거리에 대한 感想(appreciation) 모두를 포함한다. 그것은 移動(movement)의 의미도 가진다. 지리적 차이, 장소개념, 특이성, 그리고 장소들 사이의 차이도 포함하며, 상이한 사회들과 주어진 특정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이들 모두에게 부여하는 상징과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Massey는 공간 혹은 공간적인 것의 의미를 지리학 내의 주요 패러다임을 모두 수용하여 매우 광범하고 풍부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Pred(1985)는 ‘공간’이나 ‘공간적인 것’이라는 용어보다는 ‘장소’와 ‘지역’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면서, 場所란 안정적으로 고정된 存在(being)가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生成(becoming)되는 過程(process)으로 인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場所는 항상 인간활동의 산물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것은 늘 공간과 자연을 專有하고 변형시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여기서 말하는 공간과 자연이란 시간 및 공간상에서 사회가 재생산되고 변동되는 것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같이 장소란 시간 및 공간상에서의 지속적인 인간활동(human practice)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경험-에 의해 특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단순한 舞臺(scene)나 ‘現場’(locale) 혹은 環境(setting)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生成되는 것이며,

현재의 무대를 장소로서 창출하고 이용함으로써 특정한 맥락속에서 역사형성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다.

2) 空間의 役割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空間이 수행하는 役割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空間은 그 속에 온갖 事象(things)을 담고 있는 단순한 容器(containers)가 아니다. 그것은 한낱 어떤 존재의 외부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본질적 차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리학 연구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편협하거나 경직되게 인식되어 왔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공간은 사회적 프로세스의 산물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assey, 1984a). 물론 공간적 분포와 지리적 차이를 사회적 프로세스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사회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적인 것'은 단순히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력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리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공간적 윤곽을 만드는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타 사회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프로세스들은 필연적으로 거리나 이동 그리고 공간적 차이와 연루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고 재생산되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결국 공간적인 것만이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것 역시 공간적으로 구축된다.

신지역지리 논의에서 이처럼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풍요롭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새로운 時空間 概念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회이론들이 수용해온 공간과 시간 개념은 칸트철학에서 정립된 개념이었다(박형준,1992). 칸트철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차원이며, 그것은 결국 존재의 단순한 외적 조건, 즉 환경이나 무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의 공간과 시간 개념은 공간이 시간과 같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시간은 객체가 존재하는 외부환경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적 본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Giddens(1987)는 칸트의 공간-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개념에 준거하여 사회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하이데거의 공간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간 역시 인간의 외적 조건인 수동적 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setting)을 형성하는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이론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로 취급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틀이란 인간활동의 단순한 분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활동이 수행되는 바로 그 現場의 양태(features of the locales)를 조정하는 어떤 것이라는 입장이다. Giddens의 이와같은 공간인식은 지리학자들과의 활발한 학문적 대화를 가능케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4. 신지역지리연구의 주요 접근법

신지역지리연구는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構造化 理論에서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흐름, 空間的 分業論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世界體制論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마지막으로 脫-後期構造化主義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1) 構造化理論의 接近

이는 Giddens의 構造化 理論(structuration theory)과 Hagerstrand의 時間地理學(time geography)을 주요 아이디어로 하는 연구들이다.

구조화이론은 구조주의 맑시즘의 과도한 결정론과 현상학의 비역사적, 비맥락적 접근 사이의 결합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하위분야로 파편화되어 있는 지리학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Warf, 1989). 이는 능동적이고 의식있는 인간주체를 상정하며 사회구조를 의식적 행위의 비의도적 산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구조는 이를 창출하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환원될 수도 없고 이에 독립적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대한 연구는

통상 세가지 분석수준이 존재한다. 構造(structures)와 制度(institutions), 그리고 行爲者(agents)가 그것이다. 構造란 사회적 실체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변적이고,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 사회적 성 관계(gender relations), 국가 등은 모두 구조의 차원에 속한다. 制度란 구조가 실제로 표출된 것이며, 시공간상에 伸張되어 있다. 예컨대, 국가의 각 기관이나 다국적 기업, 노동조합, 지방정부, 그리고 가족 등을 들 수 있다. 行爲者란 인간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행위수행을 통해 사회적 과정의 결과를 조형한다.

이와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Gregory(1982)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양모공업의 지리물, Pred(1985)는 스웨덴 남부 스게인 지방의 엔칼로저 운동과 장소의 생성을, 그리고 Dear & Moos(1986)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계도형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접근은, 인간행위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특성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한쪽, 즉 일상생활의 의식적 행위가 사회구조를 비의도적으로 생산·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 空間分業論的 接近

이는 Massey의 空間的 分業論(spatial division of labour)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그것의 변화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소위 'localities' 연구들이다.

Massey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구조는 그 지역의 역할, 즉 국가 및 국제적 분업내에서의 비교우위에 기초해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변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 투자 특성과 일치하는 투자의 층(layers of investment)이 마치 지층과 같이 한층씩 누적되어 간다. 이처럼 각각 새로운 생산의 라운드(round)가 지역내에 沈積되기 때문에, 지역의 모습은 항상 이전 투자층의 잔여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계속 변형된다. 따라서 개별지역은 광범한 경제적 프로세스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unique identities)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Massey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Massey, 1978;1979;1984b;1993), Urry(1986)와 Markusen(1987)의 연구도 포함된다. 영국의 7개 소지역(localities)을 사례로 경제재구조화라고 하는 보편적 프로세스가 각 소단위 지역에 어떤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지역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물도 출간되었다(Cooke, 1989). 한국에서도 공간적 분업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김덕현, 1993)와 경험적 분석(강현수, 1994)이 시도되었다.

Massey의 이론은 구조화 이론이 가지는 오류, 즉 생산이론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지만, 이것 역시 사회적 재생산과 정치,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같은 생생한 이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Smith(1987)는 localities연구가 전통적인 地域誌(chorology)로 대표되는 비이론적 경험주의로 매몰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locality 연구는 locality 자체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좀더 광범한 법칙과 일반화를 추구하는 맥락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Harvey(1984) 역시 이와같은 locality 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론을 내팽개치고, 장소와 순간의 특이성으로 퇴행하여, 소박한 경험주의에 탐닉하면서, 사례와 똑같은 수의 이론을 양산하는 유희"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3) 世界體制論的 接近

이는 Wallerstein의 世界體制論(world-system theory)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Wallerstein(1974, 1979)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세계는 국가간 연계성이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동인을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총체적인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기본적으로 核心部와 周邊部, 그리고 半周邊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역지리연구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 지역이 외부 세계와 맺는

연계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내부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적 연계는 한 지역이 자신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세계체제 내에서의 국가별 지위변동에 관한 논의는, 세계체제가 자신의 구성인자들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aylor(1988)는 이러한 맥락에서 locality와 범세계경제를 연계시켜 특정 국가내 특정지역의 변화를 구명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은 영원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각 지역을 분석해야만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 그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하며, 세계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그는 locality와 세계체제는 두 개의 분리된, 상호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Bradshaw(1990)와 Hausladen(1989)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지역변화에 대하여 세계체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조론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前者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공간변화에 미친 영향을, 後者は 시베리아 개발이 소련 연방내 러시아의 발전과 16~20세기 초까지 세계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재하(1997)는 세계체제론적 접근이 세계화 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역형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외에 지리적 위치, 자연적 조건, 문화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지역의 성격을 분석할 때도 경제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문화적 측면 등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龍尾라고 하는 한반도의 특정 locality의 성격이 지난 한세기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이재하·이해주, 1999).

4) 脫-後期構造主義的 接近

이는 최근 인문·사회과학계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主觀性과 主體가 충분히 고려되는 새로운 지역 설명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의는 거의 Thrift(1983;1990a;1990b;1991;1993)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는 '80년대 초반 구조화 이론가들의 주요 관심사를 엄밀하게 검토한 후 구조화 학파는 비기능주의적 사회이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들 이론 속에도 여전히 결정론적 요소가 온존해 있다고 비판하고, 좀더 소규모 공간 스케일에서 고유한 사건(unique events)을 고려하려 할 때 사회이론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후 '80년대 중후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거쳐 그는 자신이 이전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확대 발전시킨 새로운 지역지리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탈-후기구조주의(post-poststructuralism)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지역지리연구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지역지리 논의의 다양한 변종들 -지역적 분포를 지도화하기, locality연구, 장소에 대한 인간주의 접근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특히 locality연구에 대한 그의 비판은 구체적이며 신랄하다:

...1980년대 후반은 인문지리학 내에서 로캘리티 개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이해해야할 특별한 필요에서 비롯된 로캘리티 개념은, 점차 탈맥락화, 일시적 구경거리화(spectacularized), 그리고 포스트모던화 하고 있다. 이 용어는 그 자체로서 수많은 이론가들의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였다. 아마도 로캘리티 논쟁의 중요한 장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아무나 짐적 거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만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로캘리티 논쟁에서 언급된 로캘리티는 주체와 주관성이 결여된 로캘리티라는 것. 198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진행된 구조-행위논쟁은 대부분 구조쪽의 승리로 결론났다.

Thrift는 "어떤 한 지역의 총체적인 생활방식을 충분히 이론화된 방식으로 발견해내고 재현하는 것"을 신지역지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신지역 지리학이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판적 실재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재론이 신지역지리의 연구방법과 목적을 명료하게 밝히는 데는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학문의 객관성에만 집착하게 하거나 생생한 경험세계를 애매하게 다루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근래에 있었던 지리학에서의 구조와 행위수행의 논쟁은 구조의 승리로 끝났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수행은 신지역지리에서도 여전히 이론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어떤 맥락 속에서 주관성을 이론화하려는 연구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脈絡(context)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역지리는 맥락의 중요성을 포착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맥락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요컨대, 신지역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관성과 주체가 설 자리가 마련된 설명틀을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주체에 대한 충분히 맥락화된 설명틀과 맥락에 대한 충분히 주체화된 설명틀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Thrift의 일관된 주장이다.

5) 統合的 接近

이처럼 새로운 지역지리연구는 여러 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통합하고자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는 Warf(1989)이다. 그는 구조화 이론(이를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 부른다)과 공간 분업론(이것은 '위로부터의 접근'이라 부른다)을 통합하여 장소에 대한 핵심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신지역론'(new regionalism)이라 부르고 있다.

그는 먼저, 국가적 및 범세계적인 공간경제 수준의 프로세스나 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무시하는 관념론적 접근(idealist approaches)과, 반대로 국지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local agents)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법칙추구적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이러한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공간 스케일이

달라짐에 따라 의식적 행위(conscious action)가 가지는 중요성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생한 경험과 사회-공간적 구조를 동시에 모두 고려하면서, 의식적 행위가 가지는 '한계성'(boundedness)이 연구의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각각 다른 함의와 분석적 유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화 이론은 방법론적으로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locality와 생생한 경험의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연구에는 가장 적절하고 성공적인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공간 스케일이 더 클 경우, 개별 행위자의 의식을 다루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이 때에는 國家나 資本의 흐름, 市場行態, 그리고 資源配分과 같은 '構造的 規定力'(structural determinants)에 토대를 둔 연구가 좀더 충실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그는 기본적으로 소단위 지역(localities)을 연구하는 데는 구조화 이론적인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공간 스케일이 커질수록 개별 행위자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적 규정력'을 설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맺는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지리연구 방법론이 우리 국토를 연구하는데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우선 신지역지리 논의는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공간(지역 혹은 장소)의 의미를 풍요롭게 확장시켜 주고 있으며, 공간(혹은 공간적인 것)과 사회(혹은 사회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간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인식토록 한다. 이제 각 지역(혹은 localities)은 외부세계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 변화되어 가는 우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스케일 -국지적(local), 지방적(regional), 국가적(national), 그리고 세계적(global)-에서 연유한 변화동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필연적이고 결정론적인 설명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 국토 연구에서의 적실성 혹은 한계점과 관

련하여 볼 때,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의식적 행위가 지니는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한 Warf의 지적은卓見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특정한 공간 스케일에서 행위 주체인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공간적으로 의식적 행위의 주체인 개별인간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이점은 바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는 능력'(knowledgeability)과 그것을 앎으로 인해 '상황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행위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행위주체가 가지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지방정치의 활성화 여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와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사회냐에 따라 행위자의 능력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서구 선진 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행위주체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개연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지역지리연구에서는 지역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개별행위자의 의식과 동기를 강조하는 구조화 이론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규정력을 중시하는 공간 분업론적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을 지닐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지역지리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신지역지리 연구이념을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로 이어주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지리 연구이념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경험적인 사례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좀더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연구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보다 소단위 지역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지역지리 연구를 위한 중요

한 관건 가운데 하나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중 일부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文獻

- 강현수, 1994, "한국의 지역불균등 발전의 전개과정과 80년대 이후의 새로운 양상," 『공간환경』, 47, 3-13.
- 김덕현, 1993, "매시의 노동의 공간분화론," 한국지리연구회 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341-357.
- 류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 『현대사회』, 6(4), 246-263.
- 박규택·이상률, 1999,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5-27.
-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14.
- 박형준, 1992, "안토니 기든즈의 구조화 이론과 근대성," 『한국사회학』, 26, 172-173.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이천 지방노동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하, 1997,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 이재하·이혜주, 1999, "龜尾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77-90.
- 최병두, 1994,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위하여," 『경북지리교육』, 5, 1-10.
- Bradshaw, M. J., 1990, "New regional geography, foreign-area studies and Perestroika," 『Area』, 22(4), pp.315-322.
- Cooke, P., ed., 1989,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Unwin Hyman.
- Dear, M. and Moos, A. I., 1986, "Structuration

- theory in urban analysis: 2. empirical appl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18(3), pp.351-373.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Polity Press, p.368; 1987,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Polity Press, p.144.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2), p.221.
- Gregory, D.,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Hutchinson, p.89; 1982, *Region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A Geography of the Yorkshire Woollen Indust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rvey, D., 1984,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f geography: An historical materialist manifesto,"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6 (1), p.8.
- Hausladen, G., 1989, "Russian Siberia: an integrative approach," *Soviet Geography*, 30(3), pp.231-252.
- Hoekveld, G. A., 1990, "Regional geography must adjust to new realities," in R. J. Johnston, J. Hauer, G. 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pp.11-12.
- Johnston, R. J. and Claval, P., eds., 1984,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 International Survey*, Croom Helm, pp.19-23.
- Johnston, R. J., 1991, *A Question of Place: Exploring the Practice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pp.67-68.
- Johnston, R. J., Hauer, J., and Hoekveld, G. A., 1990, "Region, place and locale: an introduction to different conceptions of regional geography," in R. J. Johnston, J. Hauer, G. 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pp.1-10.
- Markusen, A., 1987, *Regions: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erritory*, Rowman and Littlefield.
- Massey, D., 1978, "Regionalism: 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6, pp.106-125; 1979,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Regional Studies*, 13(2), pp.233-243; 1984a, "Introduction: Geography Matters," in D. Massey and J. Allen, eds., *Geography matters! A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5; 1984b, *Spatial Division of Labour*, Methuen; 1993,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78(2), pp. 142-149.
- Pred, A., 1984,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 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AG*, 74 (2), pp.279-297;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Enclosure, social change and the becoming of the places in Skane," in Gregory, D. and Urry, J.,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pp.337-365.
- Smith, N., 1987,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19(1), pp.59-68.
- Taylor, P. J., 1988, "World-systems analysis and regional geography," *Professional Geographer*, 40(3), p.264.
- Thrift, N. J.,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pp.23-57; 1990a, "Doing regional geography in a global system: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City of London, and South East of England, 1984-7," in R. J. Johnston, J. Hauer, G. A. Hoekveld, 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pp.180-207; 1990b,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HG*, 14(2), pp.272-279; 1991,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2," *PHG*, 15(4), pp.456-465; 1993,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3," *PHG*, 17(1), pp.92-100.
- Urry, J., 1981, "Localities, regions and social class," *IJURR*, 5(4), pp.457-474; 1986, "Locality Research: The Case of Lancaster," *Regional Studies*, 20(3), pp.233-242.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f, B., 1988, "The resurrection of local uniqueness," in R. Golledge, H. Couclelis, and P. Gould, eds., *A Ground for Common Search*, Santa Barbara Geographical Press; 1989,
-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p.179.
- Wrigley, E. A., 1965, "Changes in the philosophy of geography," in Chorley, R. J. and Haggett, P., eds., *Frontiers in Geographical Teaching*, Methuen & Co. Ltd., pp.9-13.

(2002년 3월 7일 접수)